

연화사,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



광주 연화사(주지 명신스님)가 지난 6일 광주 동구(청장 임택)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 이날 기부식은 연화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연화사는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명신스님은 "올해도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게 돼 기쁘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정장은 "소중한 장학금이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기 기자 yjyou@

'영웅시대' 전남대병원에 1100만원 후원금



가수 임영웅 팬클럽인 영웅시대 광주·호남지부가 최근 전남대학교병원 소아환자들을 위해 1106만 5129원을 기탁했다. (사진) 전남대병원 행정동 집결실에서 정 신 병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영웅시대 광주·호남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해 결성된 영웅시대 광주·호남지부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장애인과 가족 100여 명을 임영웅 콘서트 실행 영화 '아임 히어로 더스타디움' 관람에 초대했고, 전남대병원 소아환자들을 위해 치료비를 전달하는 등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호균 전남대 교수 논문

국내 대학 연구자 영향력 1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김호균(사진) 교수가 국제 저널에 게재한 논문 '변혁적 리더십'이 국내 대학 연구자 중 연구 영향력(FWCI 기준) 1위를 차지했으며, 피인용 지수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 논문으로 선정됐다.

김호균 교수는 지난 2014년 국제 저널 'Public Organization Review'에 '변혁적 리더십, 조직집단문화, 정서적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 시민행동: 한국 공공부문의 한 사례'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FWCI 지수 4.4를 기록하며, 국내 연구자 중 가장 높은 연구 영향력을 보였다. 또 총 118회 인용돼 세계 평균 FWCI 지수보다 약 4.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해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전 세계 230개국 이상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평가지표를 제공하는 'SciVal(사이발)' 시스템을 통해 도출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항공우주학과, 국제로켓대회 본선 진출



조선대 항공우주학과 학생들이 이루어진 HANul팀이 오는 6월에 열리는 국제로켓대회(IREC)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 국제로켓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로켓 설계와 제작 능력을 겨루는 권위 있는 대회로 본선에 23개국 165개 팀이 참여한다. 국내에서

IREC 본선 진출에 성공한 단일팀으로는 조선대 HANul팀과 서울대 하나로팀이 있다. 공력, 구조, 제어, 추진 등으로 구성된 HANul팀은 로켓 설계부터 제작, 시험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해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보훈청, 제대군인 찾아가는 순회상담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6일 전북동부보훈지청 4층 회의실에서 전북동부 관할지역(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등)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구직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원거리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사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원거리 순회상담은 전역을 앞둔 군인들에게 인생 2장 설계를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변화관리 교육, 대상별 맞춤형 전문상담, 채용정보 제공 등이 진행됐다. 순회상담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명규 동신대 태권도학과 교수

한국무예학회 우수연구자상 수상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 정명규(사진) 교수가 2024년 한국무예학회 '우수 학술상, 우수연구자상' 선정에서 무예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무예학회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2024년 기준 한국무예학회 '무예연구(KCI, 등재학술지)'에 5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한국 무예 연구 발전을 위한 공헌에 힘썼다. 또 정 교수는 2023년에도 최우수연구자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연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선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930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기본 좋은 날	5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11]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셉템버사의 비밀(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30 주니토니 이야기	20 꾸러기 탐구생활 5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40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00 12 MBC 뉴스 25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결승 남자 500m	20 SBS 12뉴스 4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	00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프리스타일스키/아이스하키 /스노보드>		55 2시 뉴스 외전	10 네모세모
[2]	00 KBS 뉴스 10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아이스하키 남자A조 <대한민국:카자흐스탄>	45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재)	55 기본 좋은 날(재)	00 뉴스브리핑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 30 스튜디오 K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폭 쉬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도시락(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신데렐라 게임	05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아	30 동물은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세치JANG	00 폭 쉬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우리 집 금슬아지(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스키링 건(재)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25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35 KBC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30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웰컴 투 스포츠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교육대기획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19:20 고향민국
07:00 예요와 친구들 수리수리 넘버랜드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왔다 내 손주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내팔을 걷다! -히말라야의 꽃, 마차무차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주는 대로 먹어요 1부 바다 vs 육지 맛대결>
07:45 메탈카드봇S 경찰의 귀환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55 PD로그 21:55 EBS 다큐프라임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S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당동당 유치원(재)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30 페파 피그	
08:50 레인보우 버블럼	16:40 마사와 곰	
09:20 자이언트 팽TV	16:55 뽀롱뽀롱 뽀로로(재)	
09:40 PD로그	17:10 명탐정 피트4	
10:30 한국기행(재)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0일(음 1월 13일 庚戌)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판도를 좌우하는 요체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니라. 48년생 함께하되 굳이 상호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다. 60년생 먼 길 떠난 과객앞에 날이 저문 형상이다. 72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84년생 썩 대신 닭이지만 만족도는 괜찮다. 96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1, 67</p>	<p>午</p> <p>42년생 편견을 버리고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해볼 만하다. 54년생 불분명하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66년생 의외의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판국을 좌우하겠다. 78년생 성공할 가능성이 폭이 점점 넓어지는 형국이다. 90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나니라. 02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4, 54</p>
<p>丑</p> <p>37년생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49년생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추상같이 결단해야 한다. 61년생 드나드는 것에 각별히 주의함이 안전하다. 73년생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85년생 종류와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97년생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4, 93</p>	<p>未</p> <p>43년생 초기에는 명세하나 나중에는 상황을 이룬다. 55년생 가급적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67년생 원칙만을 따진다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79년생 정해진 수순대로만 행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겠다. 91년생 확실한 자기 주관과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03년생 공명어 왔던 것에 치질이 벗어날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7, 73</p>
<p>寅</p> <p>38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원만함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50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코다치는 수가 있다. 62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중용의 도를 잃지 말자. 74년생 의미 있는 하루가 전개될 것이다. 86년생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 98년생 마무리까지 확실해야 비로소 취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8, 79</p>	<p>申</p> <p>44년생 부당스러운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56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를 불기피하게 변경하는 판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68년생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오래 갈 것이다. 80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느니라. 92년생 후유증을 동반하면서 하강한다. 04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55</p>
<p>卯</p> <p>39년생 곧 알게 될 것이니 마음을 억누르고 조금만 기다려라. 51년생 어떠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듣고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63년생 다른 생각일랑 접어 버리고 본인의 생활에 충실 하는 것이 이익이다. 75년생 장군한다면 참된 결론에 이른다. 87년생 행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용이하다. 99년생 보편적인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2, 82</p>	<p>酉</p> <p>45년생 유익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단계이다. 57년생 성과를 가져올 만한 원인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다수자가 이마를 맞고도 심각하게 의논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81년생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93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05년생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5, 51</p>
<p>辰</p> <p>40년생 임시적인 방편으로 도모한다면 무의미하다. 52년생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주된 것의 손실이 있을 수다. 64년생 차분하게 공리해보면 꼭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76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88년생 외관의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둔중하게 대처하자. 00년생 힘들더라도 잘만 처리한다면 밝은 미래를 기약한다. 행운의 숫자 : 08, 64</p>	<p>戌</p> <p>46년생 일방으로 편중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길목에 이른다. 58년생 노출되어 있는 것만으로 응대해서는 아니 된다. 70년생 절제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82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느니라. 94년생 제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흡족 하겠다. 06년생 실익이 없다면 나설 이유도 없다. 행운의 숫자 : 03, 86</p>
<p>巳</p> <p>41년생 중용의 입장과 균형 잡힌 처세가 필수적이다. 53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가 없고 효과도 굉장하다. 65년생 생 각모습과 실제의 행편은 확연한 차이가 있느니라. 77년생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89년생 생 실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01년생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겠다. 행운의 숫자 : 17, 77</p>	<p>亥</p> <p>47년생 지나치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우니라. 59년생 손리에 따르면 거리가 멀어질 것이 옳으리라. 71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의 행운으로 이어진다. 83년생 무의미한 정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95년생 쏟아내려고 고만 하지 말고 주위 담도록 하자. 07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5, 57</p>